

## 한국지엠지부, 노조-정부-지엠 세 주체 회의 제안

6일, 노조-지부 산업은행 앞 기자회견... “장기대책 마련 위해 노조 경영실사 참여해야”



금속노조와 한국지엠지부가 한국 지엠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조의 경영실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와 한국지엠지부는 3월 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장폐쇄 철회, 경영실사 노조참여, 특별 세무조사, 먹튀방지법 제정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엠 자본이 한국지엠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산 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와 한국지엠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에 ▲산업은행-글로벌 지엠 비공개 합의서 공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국회 국정조사로 매출원가, 이전가격, 고금리

차입금, 업무지원비 실체 규명 ▲해외기업 먹튀방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임한택 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노조, 정부, 회사 세 주체 회의를 제안한다”라며 “한국지엠 경영실사 과정에 노조가 참여해 투명한 결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명주 노조 부위원장은 “지엠이 한국에서 거둔 이익을 미국으로 빼돌렸다. 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규탄했다. 송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엠은 금속노조가 지정한 사람을 한국지엠 경영실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가 해외투자기업의 잇따른 먹튀 행각에 법 제도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업은행은 지엠이 각국에서 벌인 먹튀 행각을 알면서 이제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허둥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먹튀 방지법 제정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한국지엠지부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걸 산업은행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대표자들은 요구사항 전달을 위해 한승희 국세청장,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지부는 산업은행 본점과 국회, 미 대사관, 국세청 앞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밝히는 1인 시위를 벌인다.

# 정몽구, 돈으로 불법파견 면죄부 샀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서울지검 앞 농성... “뇌물상납·불법파견 정몽구 구속, 대법 신속 판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명박,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파견 면죄부를 받고 있다”라며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3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찰청 앞에서 ‘이명박 뇌물상납!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몽구 처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들은 농성에 들어가며 ▲이명박-박근혜 뇌물상납,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구속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이행 ▲10년 넘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몽구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인인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760만 달러



를 대신 내주고,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불법파견 범죄에 관해 비호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2014년과 2017년 법원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라면서, 정몽구 회장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불법파견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농성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뇌물을 상납한 대가로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를 구속 처벌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농성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하급심은 오래전 자동차 제조업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판결을 지연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라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현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집행위원장은 “어제 암 투병 중인 조합원이 ‘죽기 전에 정규직 출입증을 꼭 받고 싶다. 나는 병마와 싸울 테니 동지들도 힘차게 싸워서 꼭 정규직화를 쟁취해 달라’는 말을 전해달라 했다”라며 끝까지 투쟁한다고 다짐했다.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마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대표들은 ‘뇌물상납,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구속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 “파산은 잘못된 선택, 두원정공 파산신청 철회하라”

노조-정의당 국회 기자회견... “부품사 포함 제조업 발전, 지속가능성 대책 필요”

금속노조와 정의당이 두원정공의 파산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정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자동차 부품업체의 지속경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3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두원정공 파산 철회 촉구 금속노조-정의당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두원정공은 지난 2월 21일 회사를 더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파산을 신청했다. 노조 경기자부 두원정공지회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상여금 반납, 연월차 의무사용,

복리후생비 절감 등 고통분담에 나섰지만 회사는 무조건 파산을 고집하고 있다.

두원정공지회는 “세계 경제 상황과 자동차 산업 환경이 요동치고 있는데, 완성차 현대차 자본이 갑질로 위험부담을 부품사 노동자와 사회에 떠넘기고 있다”라며 “규제완화와 이윤 추구에 매달린 정부와 자본이 두원정공을 파산으로 몰고 있다. 두원정공 파산이 납품사의 노동자 가족, 지역사회를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두원정공지회는 기자회견에서 ▲두원정공 자본은 파산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경영의 책임을 다하라 ▲현대차 자본은 경영위기 협력사 살리고 부품사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자 삶과 권리 흐드는 정리해고제, 파견제, 변형근로제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노동자 삶과 지역 경제 무너뜨리는 자동차 산업 위기에 책임 다하라는 내용의 요구를 발표했다.